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25:6-8  
2026년 2월 8일 오전 11시

##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 주역 도우소서 >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봄에 씨를 뿌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가을에 추수하는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김을 매는 일, 곧 잡초를 뽑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김을 매려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루 종일 김을 매고 나면 “이제 다 뽑았다” 싶은데,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가보면 또 잡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김매기를 포기하면 농사가 망합니다. 잡초는 그냥 두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도 이런 끝까지 남는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 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마귀도 원수지만 마귀가 사라진 후에도 끝까지 남아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는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사망을 단순한 현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롬 5:17 상반절).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말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들을 다스렸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싸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막 14:52).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망의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로 사망의 종 노릇을 합니다.

## 1. 사망의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사울 왕은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3 만대의 병거를 동원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삼상 13:5). 그러자 전쟁을 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 보지도 않고 도망을 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삼상 13:7). 병거가 울 수 없는 요단강 너머로 도망치고, 남아 있는 군인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헌데 사무엘이 일주일도 넘도록 오지 않자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들도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삼상 13:8).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삼상 13:9). 사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해서 안될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의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삼상 13:10). 사울은 태연하게 사무엘을 맞으며 인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태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며 사울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삼상 13:13-14). 결국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은 그를 사망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려워서, 망할까 두려워서,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령된 일을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막 8:35). 제 목숨을 살리려고, 제 이익을 지키려고,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은 실상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고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 19:27).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였을까요? “베드로야, 너 이러려고 나를 따랐니? 나한테 뭐 얻어 먹을 것 없나 하고 따라 다녔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순수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미래와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6-8)

약속합니다. 또한 상급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얻을 것입니다.

## 2.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사망의 종이 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일생 동안 두려움 때문에 사망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14-15).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부활과 승천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앞서로라”(롬 6:9).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게 된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6-8)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숨 자고 일어나는 낮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60).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테반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스테반의 죽음을 애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행 8:2). 돌에 맞아 찢긴 스테반의 시신을 수습하여 씻기고 수의를 입혀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죽음은 사랑하는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습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닦아 주실 날이 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사 25:8). 바로 종말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종말에는 세상을 향한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 뿐 아니라 땅도 심판을 받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흠으시리니”(사 24:1). 땅 뿐 아니라 하늘도 심판을 받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사 13:9-10).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온 산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사 24:23).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사 25:6). 또한 죽음과 슬픔을 제거하십니다.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6-8)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7 절). 가리개와 덮개는 시신을 가리고 시신을 덮는 수의입니다. 따라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는 것은 죽음과 슬픔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 3.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의 약속

나아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8 상반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십니다. 사망은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멸망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 20:14).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사망이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 뿐 아니라 마귀도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10).

나아가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사망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울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다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종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사 25:6-8)

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망을 영원히 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